



미국 증시, 차익실현 압력, 기업 실적 소식 등에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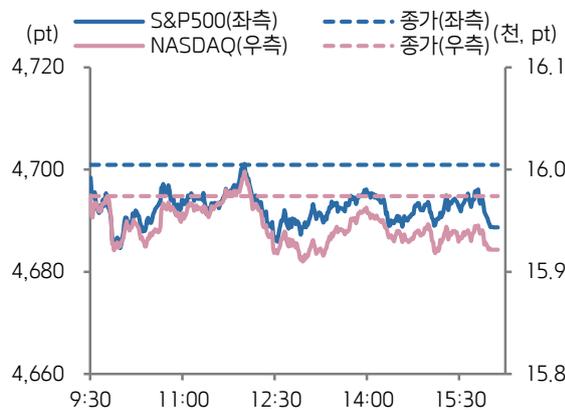
17 일 (수) 미국 증시는 실적 등 개별 이슈들에 따른 차별화 장세 속에서 성장주들의 차익실현성 매물로 하락 마감. 전일 월마트에 이어 타겟, 로우스, TJX 등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소화하며 경기소비재(+0.6%) 업종은 강세 흐름을 이어 갔지만, 최근 급등세를 연출했던 전기관련주들은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지면서 하락(다우 -0.58%, S&P500 -0.26%, 나스닥 -0.33%, 러셀 2000 -1.16%).

업종별로 부동산(+0.7%), 경기소비재(+0.6%), 헬스케어(+0.2%) 등이 상승한 반면, 에너지(-1.8%), 금융(-1.1%), 소재(-0.6%) 등은 하락. 이날 방어주 성격의 업종들이 강세, 경기민감 업종들은 약세 흐름을 보임. 애플(+1.7%), 알파벳(+0.1%), 아마존(+0.2%) 등 대형 기술주들은 장기물 금리도 진정되면서 강보합 흐름을 보임. 한편 에너지는 OPEC 사무총장이 올해 연말 원유 과잉공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표명하면서 유가가 3% 급락한 여파에 금일 낙폭이 가장 컸음.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타겟(-4.7%)은 EPS 3.03 달러(예상 2.83 달러), 매출 256.5 억 달러(예상 247.8 억 달러)를 발표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 4 분기 쇼핑시즌 가이드선도 상향 조정했지만, 컴퍼런스콜에서 가격 인상보다 가격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하자 매물 출회(전일 월마트 실적에서 발표한 전략과 동일). 로우스(+0.4%)과 TJX(+5.8%)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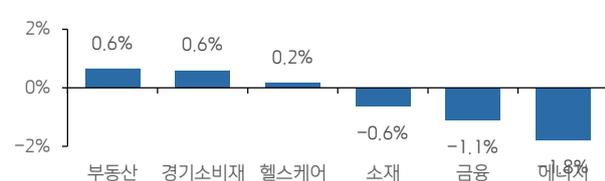
최근 강세 흐름을 보여왔던 리비안(-15.1%), 루시드(-5.4%) 등 EV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인 반면, 테슬라(+3.3%)는 머스크 CEO 의 지분 매각 이슈가 진정되자 반등.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3.1%, YTD +123%)는 EPS 1.17 달러(예상 1.11 달러), 매출 71.0 억 달러(예상 68.2 억 달러) 등 실적 호조 발표. EPS 는 전년대비 60%, 매출은 50% 성장, 특히 데이터센터용 AI 칩들의 매출이 55%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장외로 4% 이상 상승 중.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43.05	-0.57%	USD/KRW	1,170.74	-0.44%
NASDAQ	15,037.76	-0.45%	달러 지수	92.65	-0.03%
다우	34,577.57	-0.84%	EUR/USD	1.18	+0.03%
VIX	19.46	+0.46%	USD/CNH	6.44	+0.02%
러셀 2000	2,209.99	-1.37%	USD/JPY	109.68	-0.01%
필라. 반도체	3,449.39	-0.0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285.46	-1.13%	국고채 3년	1.540	+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062	+1.7bp
Eurostoxx50	4,191.67	+0.05%	미국 국채 2년	0.207	-0.6bp
MSCI 전세계 지수	737.62	+0.05%	미국 국채 10년	1.284	-4.2bp
MSCI DM 지수	3,126.10	+0.1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301.54	-0.57%	WTI	70.46	+0.01%
MSCI 한국 ETF	84.36	+0.14%	금	1807.1	+0.7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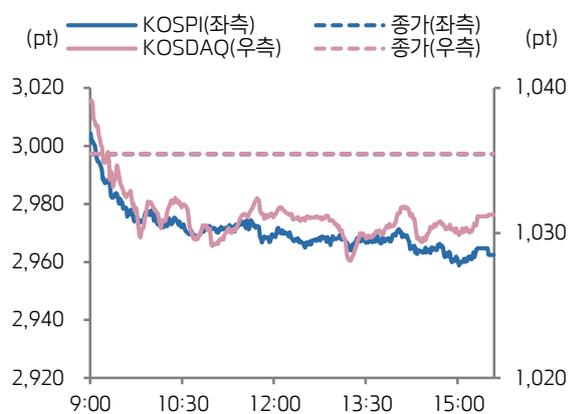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1.6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최근 쏠림현상이 심화됐던 특정 테마 업종 및 종목에서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3. 전거래일 1% 넘는 하락에 따른 지수 전반적인 기술적 및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달러 인덱스가 95 선을 상회하며 약 16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달러화 강세 기조가 주요국 주식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전거래일 국내 증시가 미국 소비지표 호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경신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주된 원인은 달러화 강세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지난 10 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 쇼크 충격을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가 달러화에 강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재 유럽 내 코로나 대유행이 재차 발생함에 따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국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로 인해 유럽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면서 유로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부스터샷 시행 촉진 기조, 코로나 치료제 출시 기대감 등을 고려 시 지난 대유행에 비해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기에, 유로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인플레이션의 경우, 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천연가스, 유가, 농산물 등 주요 상품들은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전거래일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유로존, 영국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계심리가 상존한 상황. 또한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1%대 하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에도 제한된 추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국내 증시는 NFT, 메타버스를 제외한 그외 섹터 및 테마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면서, 상기 언급한 특정 종목군들로의 쏠림 현상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모습. 금일에도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이익실현 목적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고 판단. 이 과정에서 연쇄 차익실현 매매 행렬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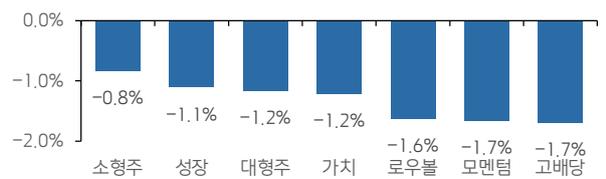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